

고창 구시포 앞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들어선다

문재인 대통령 참석 민·관 등 MOU...2028년까지 4조원 투입 2.4GW 건설 20년간 발전소 주변 정부 지원금 300억 확보 등 지역 미래발전 마중물 기대

고창 구시포 앞바다에 2.4GW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들어선다

19일 고창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도, 고창군, 부안군, 한국전력공사, 한국해상풍력, 고창군·부안군 주민대표는 지난 17일 '전북 서남권 주민상생형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추진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고창 구시포 앞바다와 인근지역에 오는 2028년까지 약 14조원(민간자본)을 들여 2.4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건설이 추진된다.

2022년 한국해상풍력(주)이 시범단지(400MW)를 우선 착공하고, 확산단지(2GW)는 풍황조사 등을 거쳐 2023년에 착공한다.

이 단지가 모두 준공되면 224만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시민·환경단체, 주민대표가 참여해 논의하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초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 풍력기업은 2011년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2019

년까지 3단계에 걸쳐 2.46GW 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업황 부진으로 풍력업체가 사업을 철수하고 주민 반발이 일면서 2017년에야 실증단지(60MW)를 착공해 지난해 완공했고, 나머지 시범 및 확산단지를 구축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전북도가 주도해 구성된 민관협의회가 작년 7월부터 1년간 11차례에 걸쳐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한 결과 이번에 합의점을 도출했다.

민관협의회를 통한 해상풍력 사업추진 합의는 이번이 국내 첫 사례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해상풍력단지는 국내 최초 와인글라스형 미항인 구시포항과 함께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연간 200억원 상당의 재생에너지 지원금(REC가중치)은 물론, 앞으로 20년간 300억원대의 발전소 주변지역 정부지원금이 확보돼 지역 미래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은 해상풍력 업체에 현물이나 채권방식으로 투자해 고수익을 얻을



문재인 대통령과 성운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기상 고창군수 등이 지난 17일 부안군 위도 해상의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전북 서남권 주민상생형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마친 뒤 특산물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수 있게 된다. 또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활용한 양식장 조성, 인공어초 설치 등 50억원 규모의 양식자원 복합단지 실증사업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고창 앞바다 해상풍력 공사단계에서

무항타공법 등 소음·진동·부유사 최소화를 위한 시공법을 적용하고 운영 단계에선 주민과 함께 3년간 모니터링을 의무화했다"며 "중로 단계에선 원상회복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해상풍력과 지역 수산, 관광업의 상생모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읍성서 성곽 방어시설 '양마장' 확인

조선문화유산연구원, 복성벽 발굴 성벽·해자 사이 '낮은 울타리' 흔적

남원시가 남원읍성 발굴조사를 통해 성곽 방어시설인 양마장(羊馬牆)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19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에 걸쳐 (재)조선문화유산연구원과 함께 복문지를 포함한 복성벽 약 200m구간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원시는 최근까지 옛 남원역사를 발굴 조사하면서 복문지의 구조 및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설들을 다수 확인하고, 복성벽 및 양마장, 해자의 구조 및 분포 범위 등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복문지는 협축식(狹軸式)으로 조성돼 있었다. 기단석(地대석)은 외벽과 개구부인 측벽 전체에서 확인됐으며, 내벽은 각각 동서로 3m 정도까지만 확인됐다.

특히 기단석 위로는 길이 1m 내외의 대형 석재를 사용, 면석을 쌓은 부분이 확인됐다. 현재는 1~2단 정도만 남아있지만, 문지의 성벽 폭은 8.6m 내외이다.

복문지 개구부의 폭은 5.7m 내외였다. 중앙에는 폭 3m, 길이 11.5m 내외의 납작한 강돌을 깔아 조성된 보도시설이 확인됐다.

내벽 안쪽에 인접한 바닥면에서는 문루의 총 12개의 초석이 확인됐다. 초석의 배치상태로 보아 정



남원시가 남원읍성의 발굴과 복원 사업을 추진 중인 복문지.

면 3칸, 측면 2칸의 개거식(開渠式) 문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에서는 조선시대 자기편과 기와편이 주를 이루며, 수 점의 철축과 함께 성문의 부속품으로 보이는 철제품 등의 유물도 나왔다.

체성부 외벽에서 7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폭 80cm 기량의 양마장(羊馬牆)도 확인할 수 있어 눈길을 끌었다.

양마장은 성곽 방어를 위해 성벽과 해자(壕子·성 밖으로 둘러 판 연못) 사이에 만든 낮은 울타리를

말한다. 양마장 밖에서는 폭 5m의 해자가 나왔으며, 해자 바닥에는 나무로 만든 장이 설치된 흔적들이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총열, 약실 등이 온전하게 남아 있는 길이 32cm의 총통도 발견됐다.

남원시는 남원읍성 복원을 위해 작년 9월부터 조선문화유산연구원과 함께 발굴조사를 하고 있다.

남원읍성은 만인의총이 모셔진 곳이어서 일제가 의도적으로 훼손했던 유적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익산시, 전북 최초 다문화전시체험관 조성

익산역 인근...나라별 전시관 갖춰

익산시는 다문화시대에 맞춰 다양한 국가의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익산역 주변 교복거리에 전북지역 최초로 다문화전시체험관인 국제문화관을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제문화관은 연면적 1489㎡로 지하1층~지상3층 규모이다.

카페, 나라별 음식점, 전통의상 체험실과 문화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나라별 전시관과 요리체험실과 사무실 및 교육실이 들어서며, 지하에는 공연장이 갖춰진다.

특히 육상은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시설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1억5000만원을 확보, 야외 공연장과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외국인이 소통하고 교류 장소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도시재생으로 역동하는 구도심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간으로도 명성을 떨칠 전망이다.

전북 최초로 조성되는 국제문화관은 다문화체험 시설로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동, 학생을 비롯해 관광객들의 방문 체험을 유도해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된다.

또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과 함께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나라별 요리 강습을 실시해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한편 오는 9월 개관을 앞둔 국제문화관은 매주 월요일만 휴관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단체 관람 및 체험은 사전에 접수해야 한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군산시, 30년 한우물 판 소상공인 발굴 '전통 명가' 육성

군산시는 지역에서 30년 이상 한 우물을 판 소상공인을 발굴해 '전통 명가'로 육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전통 명가'로 선정되면 인증 현판과 경영환경 시설 개선비를 준다. 또 3년간 경영 컨설팅을 해주고 홍보·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시 종업원이 5명 미만인 업소로, 대표자가 최근 1년 이상 군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군산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시작해 한복, 도장,

수제화 등을 제작·판매하는 업소 11곳을 전통명가로 지정했다.

다음달 4일까지 희망 업소의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 평가를 해 선정한다.

강인준 군산시장은 "전통을 이어온 소상공인들이 경기침체 등으로 문을 닫는 것을 막고 지역의 대표 업소로 성장시키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모던스타일



Classic

클래식스타일



Mediterranean Sea

지중해스타일



